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74호 (2015-06) 발행일 : 2015. 03. 02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인의 가구유형별 개인특성별 주관적 행복수준*

삶의 질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삶의 질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가구유형별 행복수준은 장애인이 있는 가구, 노인이 있는 가구,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실업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있는 가구는 낮게 나타나고, 아동이 있는 가구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개인특성별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수준이 낮아지는 추세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가구주가 비가구주보다 행복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경제활동별 행복수준은 상용직 > 고용주 및 자영자 = 비경제활동인구 > 임시일용직 > 실업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직종별 행복수준은 관리 전문직 > 사무서비스직 > 숙련 기술직 > 비경활 및 실업자 > 단순노무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정규직 여부에서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높은 행복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조사결과는 노인 장애인이 있는 가구,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임시일용직, 실업자,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등에 사회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김미곤
사회보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 행복의 개념

■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과 다윈(Darwin)적 행복론

○ 행복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유래. 19세기 일본 학자들이 철학(philosophy), 경제학(economics) 등의 서구 개념을 일본식으로 표현하면서, 'happiness'를 행복이라고 번역

* 본 자료는 3월에 발표될 행복결정 요인분석의 전반부에 해당되므로 기초분석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함.

-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을 최고의 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잘사는 것(eu zen)’과 ‘잘 행위 하는 것(eu prattein)’을 행복(eudaimonia)이라고 설명. 인간 고유의 기능은 ‘탁월성에 따르는 이성적 영혼의 활동’ 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최고선이며 행복이라고 봄
- 다윈적 행복이란 인간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과 번식’ 그 자체이므로 행복감이란 삶의 확률이 높아졌을 때 느끼는 쾌감으로 생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임
 - 벤담은 『도덕과 입법에 관한 원칙』에서 “행복은 ‘쾌락의 향유’와 ‘고통으로부터의 안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벤담, 1948). 즉, “행복이란 향유하는 자의 의도된 쾌락(intended pleasure)이며 고통이 없는 상태(absence of pain)”를 의미
- 반면, 노자는 도덕경에서 행복을 ‘마음은 비워주고 배는 채워줌(虛其心, 實其腹)’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를 박승희(2014)는 “인위적인 이름(名)에서 벗어나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장수를 누리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 과거 “우리나라는 행복이라는 용어보다는 ‘안심(安心)’ 또는 ‘안락(安樂)’을 주로 사용하였음”(주경철, 2009). 이는 마음과 몸을 하나로 보고 마음이 안심하면 몸도 안락하다고 보는 불교의 철학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됨. 최인철(2013)은 정신의 맑은 상태와 물질적 만족 상태를 조합하여 ‘쾌족(快足)’이라는 단어를 행복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2. 행복수준 국제비교

- 행복의 정도와 변인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학계에서는 행복을 지칭하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객관적 환경에 대한 묘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안녕(well-being), 삶의 질(quality of life), 풍요(flourishing)를, 주어진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 차원의 주관적 묘사에서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을 사용
- 객관적 삶의 질 수준 국제비교
 - 가장 대표적인 객관적 삶의 질 지수라고 할 수 있는 HDI(Human Development Index)지수는 세 가지 영역(기대수명, 교육, GNI)을 네 개의 지표로 측정하고 있음
 - 건강한 장수 차원은 기대여명(Life expectancy at birth)으로 측정하고, 지식 차원은 평균 취학년수(Mean years of schooling)¹⁾와 기대 취학년수(Expected years of schooling)²⁾라는 두 지표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있음³⁾. 그리고 적절한 삶의 기준 차원은 1인당 GNI(PPP US\$)로 측정

1) 평균 취학년수는 25세 이상 성인이 교육받은 평균 연수를 의미.

2) 기대 취학년수는 입학연령 아동이 연령별 교육 등록률을 감안하여 앞으로 받게 될 교육 연수를 의미.

3) 인간개발지수의 산출지표 및 산출방식은 2010년부터 변경되었다. 2009년까지는 지식 차원에서 문맹률과 취학률을 이용하였으며, 지수계산방식을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으로 변경하였음.

○ 우리나라는 1980년 0.640이었던 HDI 값이 2012년에는 0.909로 증가(UNDP, 2013). 동 기간 동안 ‘매우 높은 수준의 인간 발전을 보이는 국가들(N=47)’의 1980년 평균값이 0.773이고, 2012년 평균값이 0.905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매우 높은 발전국가’의 평균 이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을 의미함

〈표 1〉 한국의 HDI(삶의 질) 점수의 변화 (단위: 점수, %)

구분	1980	1990	2000	2005	2010	2012	평균 성장률(%)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00 - 2012
한국	0.640	0.749	0.839	0.875	0.905	0.909	1.58	1.14	0.76	0.67
매우 높은 발전 수준 국가	0.773	0.817	0.867	0.889	0.902	0.905	0.56	0.59	0.40	0.36
높은 발전 수준 국가	0.605	0.656	0.695	0.725	0.753	0.758	0.81	0.58	0.80	0.72

자료: UNDP. (2013),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 하지만, HDI보다 다양한 지표를 포괄하고 있는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삶의 질 지수⁴⁾에서는 우리나라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예컨대, 2012년 HDI 지수 순위는 185개국 중 12위이고, 2012년 EIU 지수는 80개국 중 19위에 머물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무게 중심이 기본적 조건(기대수명, 교육, GNI) 이외의 영역들에 대한 개선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함

■ 주관적 삶의 질(행복) 수준

○ 연도별 주관적 행복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인 World Value Survey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4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 점수에서 1990년 2.14, 1996년 2.00, 2001년 2.04, 2005년 1.99의 값을 보이고 있음(1= 매우 행복함, 4=전혀 행복하지 않음). 1990년에 비해서 행복감 정도는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증가세가 확인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표 2〉 연도별 한국인의 행복감 정도 (단위: 사례수, %)

조사년도	행복감(feeling of happiness)				계
	매우 행복함	꽤 행복함	별로 행복하지 않음	전혀 행복하지 않음	
1990	124 (10.4%)	817 (68.8%)	205 (17.3%)	41 (3.5%)	1,187 100.0%
1996	149 (11.9%)	960 (76.9%)	126 (10.1%)	13 (1.0%)	1,248 100.0%
2001	115 (9.6%)	937 (78.1%)	128 (10.7%)	20 (1.7%)	1,200 100.0%
2005	176 (14.7%)	873 (72.8%)	137 (11.4%)	14 (1.2%)	1,200 100.0%

자료: World Value Survey

4) 9개의 영역으로 측정. 1) 물질적 안녕 2) 건강 3) 정치적 안정과 안전 4) 가족생활 5) 공동체생활 6) 기후와 지리 7) 직업안정 8) 정치적 자유 9) 성평등

■ OECD의 종합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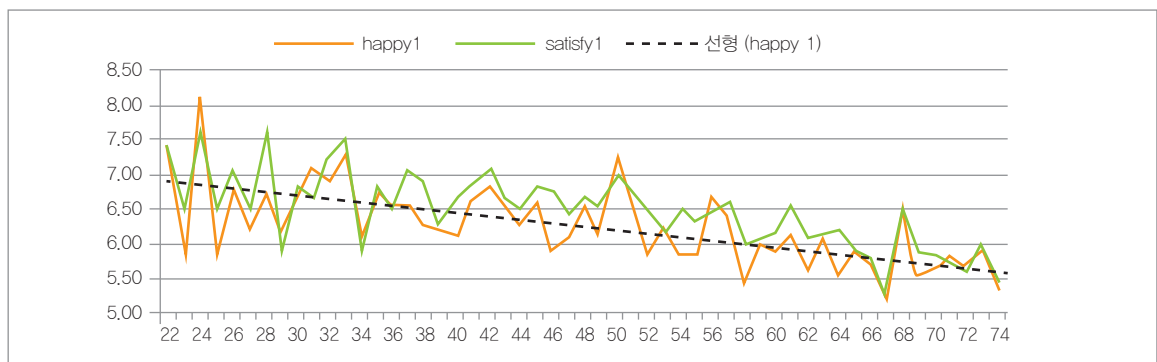
- OECD의 행복지수는 주거, 교육, 고용,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보건,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 등을 종합하여 산출
- 2013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36개국 중 27위로 조사되고 있음. 참고로 호주는 3년 연속 1위, 스웨덴이 2위, 캐나다가 3위임. 그리고 최하위는 터키로서 36위, 멕시코가 35위임
 -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체 지수는 1.6으로서 34위를 기록하였고, 일과 생활의 균형(5.0), 건강(4.9), 삶의 만족도(4.2), 환경(5.0) 등의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음

3. 한국인의 개인특성별 주관적 행복수준⁵⁾

■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행복수준⁶⁾

- 가구주 여부에 따른 행복수준(10점 만점)은 가구주(6.00)보다는 비가구주(6.40)의 행복도가 유의미하게 높음. 성별 행복수준은 남성(6.06)보다 여성이(6.34)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결과에서 남성 가구주의 삶의 애환을 읽을 수 있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짐. 일반적인 연령별 행복곡선인 ‘U’자형이 아닌 선형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낮은 노후 보장수준,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및 자살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그림 1] 연령별 행복도와 만족도 추세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 배우자 유무별 행복도에서는 유배우자(6.38)가 무배우자(5.90)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학력별 행복도에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있음
- 종교가 있고 신앙심이 강한 경우가 종교가 없는 경우나 있어도 약한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성격이 긍정적일수록 행복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요인에 비해 격차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성격과 행복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함

5) 본 조사의 표본수는 3,655가구의 3,655명임. 가구내의 표본 선정은 만 19세 이상~만 75세 이하로서 2014년 6월 30기준 최근 생일이 지난 가구 원임. 조사기간은 2014년 7월 7일~8월 20일까지임.

6)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반적인 삶의 행복도'는 " ____님께서서는 어제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라는 10점 척도 문항을 이용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행복도, 만족도, 우울도

구분	범주	행복도	F값(유의도)	삶의 만족도	F값(유의도)	우울도	F값(유의도)
가구주여부	가구주	6.00	31.72 ***	6.35	5.83 **	3.23	0.41
	비가구주	6.40		6.51		3.18	
성별	남	6.06	16.14 ***	6.41	0.36	3.16	1.19
	여	6.34		6.45		3.25	
연령	20대이하	6.53	14.59 ***	6.68	18.02 ***	3.20	7.70 ***
	30대	6.58		6.71		2.95	
	40대	6.36		6.67		3.29	
	50대	6.16		6.42		2.99	
	60대	5.78		6.03		3.58	
	70대이상	5.59		5.68		3.64	
배우자 유무	유배우	6.38	42.98 ***	6.59	38.32 ***	3.02	35.08 ***
	무배우	5.90		6.16		3.51	
학력 수준	중졸이하	5.58	49.03 ***	5.72	71.28 ***	3.63	17.04 ***
	고졸이하	6.17		6.42		3.21	
	대학이상	6.56		6.82		2.98	
종교유무 및 강도	종교없음	6.10	8.50 ***	6.36	9.56 ***	3.22	0.46
	종교있으나 신앙심약함	6.15		6.34		3.24	
	종교있고 신앙심강함	6.46		6.67		3.14	
부정 - 긍정 성격	부정적	3.74	416.69 ***	3.71	419.60 ***	5.12	159.90 ***
	보통	5.21		5.08		3.89	
	긍정적	6.79		6.63		2.77	
전체		6.18		6.33		3.30	

주: 1) 행복도, 만족도, 우울도 모두 10척도. 행복도 및 만족도는 높을수록, 우울도는 낮을수록 바람직함. 이하 동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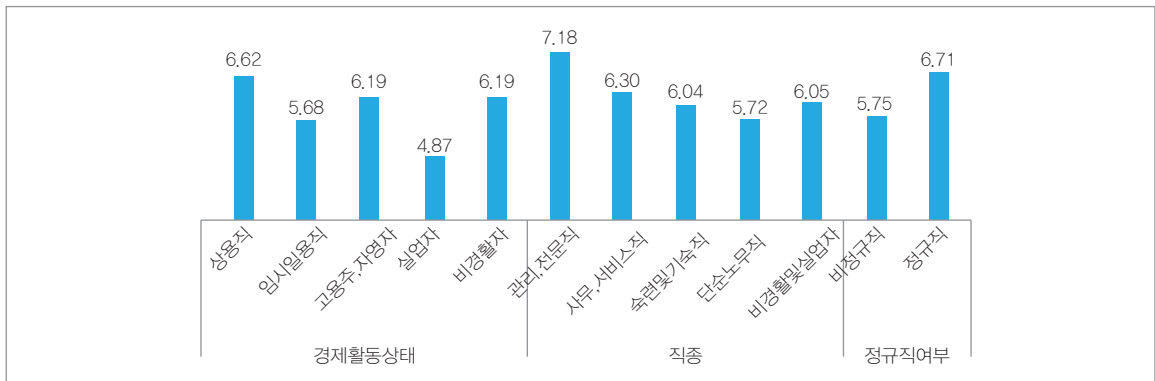
■ 경제적 특성별 행복수준

- 먼저, 경제활동별 행복수준은 상용직 > 고용주 및 자영자=비경제활동인구 > 임시일용직 > 실업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실업자 및 임시 일용직의 고통과 불안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사회 정책적 함의가 높음
- 직종별 행복도는 관리·전문직 > 사무서비스직 > 숙련 기술직 > 비경활 및 실업자 > 단순노무직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기서도 단순 노무직의 삶의 불안이 낮은 행복도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음. 이들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그리고 정규직 여부에서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높은 행복도를 보이고 있음

〈표 4〉 경제적 특성별 행복도, 만족도, 우울도

구분	범주	행복도	F값(유의도)	삶의 만족도	F값(유의도)	우울도	F값(유의도)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6.62	32.88 ***	6.91	40.68 ***	2.77	16.67 ***
	임시일용직	5.68		6.06		3.46	
	고용주, 자영자	6.19		6.56		3.36	
	실업자	4.87		5.10		4.14	
	비경활자	6.19		6.27		3.29	
직종	관리, 전문	7.18	22.45 ***	7.52	37.10 ***	2.43	10.34 ***
	사무, 서비	6.30		6.64		3.18	
	숙련및기술직	6.04		6.37		3.14	
	단순노무직	5.72		5.98		3.43	
	비경활 및 실업자	6.05		6.15		3.38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5.75	41.94 ***	6.14	48.61 ***	3.33	21.79 ***
	정규직	6.71		6.97		2.76	
전체		6.18		6.33		3.30	

[그림 2] 일자리 성격별 행복도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4. 한국인의 가구특성별 주관적 행복수준

■ 가구규모별 행복도

○ 행복도는 1인에서 4인 가구로 가구규모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다가, 5인부터 감소하기 시작함.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행복도가 높은 결과와 아동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행복도가 높은 결과 등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임

- 가구규모가 4인에서 5인으로 증가하면 부부+2자녀에 노인이 추가되는 가구유형이 일반적임. 이를 감안하면, 노인이 있는 경우 행복도가 낮은 결과와 5인 이상 가구규모에서 행복도가 낮은 결과는 동일한 가구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일 수도 있음

〈표 5〉 가구특성별 행복도, 만족도, 우울도

구분	범주	행복도	F	삶의 만족도	F	우울도	F
가구원수	1인	5.67	11.45 ***	6.12	7.65 ***	3.58	6.34 ***
	2인	6.13		6.22		3.25	
	3인	6.27		6.54		3.29	
	4인	6.45		6.66		2.88	
	5인	6.37		6.47		3.31	
	6인이상	5.24		6.12		3.39	
노인유무	없음	6.35	62.91 ***	6.59	91.52 ***	3.06	50.11 ***
	있음	5.65		5.82		3.76	
장애인유무	없음	6.29	58.43 ***	6.53	78.03 ***	3.12	38.72 ***
	있음	5.37		5.54		3.97	
만성질환자 유무	없음	6.37	91.47 ***	6.58	77.16 ***	3.08	41.18 ***
	있음	5.52		5.85		3.72	
아동유무	없음	6.04	36.68 ***	6.27	42.58 ***	3.29	7.69 ***
	있음	6.50		6.73		3.05	
실업자유무	없음	6.31	70.09 ***	6.53	64.14 ***	3.12	29.45 ***
	있음	5.43		5.74		3.77	
금융채무 불이행자 유무	없음	6.23	40.06 ***	6.45	16.95 ***	3.17	39.77 ***
	있음	4.53		5.41		5.09	
단독/한부모 가구등여부	일반가구	6.30	21.95 ***	6.49	8.7 ***	3.13	8.22 ***
	단독가구	5.67		6.12		3.58	
	모부자, 조손가구	5.58		6.06		3.59	
자가주택소유 여부	비자가	5.87	45.94 ***	6.15	40.26 ***	3.61	55.36 ***
	자가	6.38		6.59		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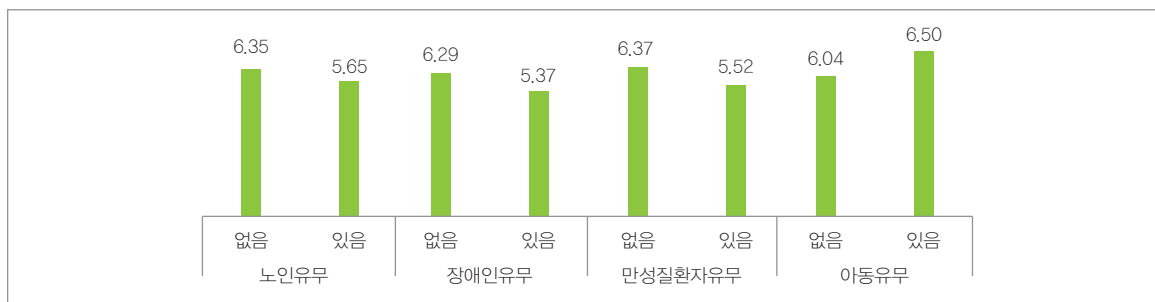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 취약계층 유무별 행복도

○가구내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노인이 있는 경우, 실업자가 있는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있는 경우는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행복도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높고(F값이 크고), 노인이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높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이는 아동이 있는 경우 행복도 및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이 낮다는 점과 뚜렷하게 대비됨

[그림 3] 가구내 취약계층 유무별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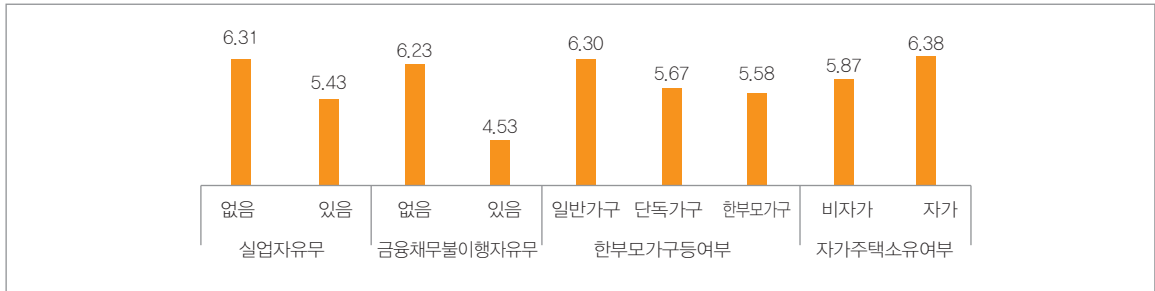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 가구형태 및 주택소유별 행복도

○ 가구형태별 행복수준은 일반가구 > 단독가구 > 모부자 또는 조손가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자가 소유 여부에 따른 분석결과는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인 자가 소유자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4] 가구형태 및 주택 소유 등에 따른 행복도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5. 정책적 시사점

■ 삶의 질 국제비교에서의 정책적 함의

○ HDI지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이보다 다양한 지표를 포괄하고 있는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삶의 질 지수에서는 우리나라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OECD 등의 종합 행복 지수에서는 객관적인 조건보다는 주관적 인식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무게 중심이 기본적 조건(기대수명, 교육, GNI) 개선에서 이제는 사회정책 등으로 삶의 질 영역과 주관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개선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함

■ 본 조사에서의 정책적 시사점

○ 국가의 임무는 객관적 삶의 조건도 좋고, 주관적 안녕의 상태도 좋은 ‘안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행복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사회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

- 가구특성별로 행복수준이 낮은 집단은 장애인이 있는 가구, 노인이 있는 가구,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실업자가 있는 가구, 신용불량자가 있는 가구, 비자가가구 등임

- 개인특성별로 행복수준이 낮은 집단은 노인, 임시일용직, 실업자,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등임

집필자 | 김미곤 (사회보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문의 | 044-287-8203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9-007)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 TEL 044)287-8000 | FAX 044)287-8052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